

##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 오찬

지금 우리경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당에서 고민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사이의 양극화 문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보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당 차원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정은 당 주도로 많이 이뤄져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좀 이양하고 분산하니까 정당이 할 일도 많아지고 책임도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대로 좀 더 가면 결국 대통령 주도의 국정운영에서 정당 주도의 국정운영체제로 상당이 많이 변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당들은 대통령 주도 시대의 문화에 익숙해 있어서 자꾸 대통령을 쳐다보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경우엔 이제 자주적으로 많은 것을 결정하지 않느냐. 앞으로 자주 만남시다.